제2강 회화와 사물Ⅱ

◎ 현상학의 등장

▲ 에드문트 후설(E. Husserl, 1859-1938)

- 등장 배경 : 세계 또는 사물을 주어지는 그대로 받아들여 그 속으로 진입해보자는 겸손한 철학적 사유가 풍미하던 20세기, 현상학의 비조(鼻祖)로 떠오름.

- 후설의 후기 사상
: 몸(Lieb)의 개념
: 판단하는 사유 이전에 이미 저쪽 사물 또는 세계에서부터 제 스스로가 사물이요, 세계임을 알리는 질서 잡힌 내용들이 중요하다.
: 선술어적(先述語的)인 사물, 혹은 세계가 선구성(先構成)되어 주어짐.
: 인간이 판단하기 때문에 사물인 것이 아니라 판단하기 이전에 사물이 주어지기 때문에 사물이라고 판단하게 됨.
⇒ 생생한 사물을 낚아채는 길을 여는 데에는 아직 미흡. 후설의 '몸'은 어디까지나 선험적 의식이라 부르는 거대한 의식의 일급 보조자에 불과한 것이다.

※ 의식의 체화(incarnation de la conscience)
- 의식을 몸으로 만드는 일
- 사물을 의식하되 의식한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기
- '의식하고 있는데도 의식하지 못한다.'(반성적 의식)

▲ 모리스 메를로-퐁티(Maurice Merleau-Ponty, 1908-1961)

- 몸을 인간존재의 근원으로 삼음. (보는 자도, 만지는 자도, 말하는 자도, 결국은 의식하고 생각하는 자도 몸이다.)
⇒ 몸은 사물이기에 사물과의 소통에서 직접적임.

가시적인 것은 정신에 대한(pour un esprit) 표상이 아니다: 정신은 자신의 표상들에 의해 매혹될 줄 모른다. 그리고 정신은 보는 자에게 본질적인 바, 가시적인 것에로의 이러한 삽입을 싫어한다.(<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>-메를로-퐁티)

- 몸과 사물간의 끊임없는 소통 : 몸은 사물들에 의해 떨리고 그렇게 사물에 의해 떨림으로써 감각 상태가 된다.
- 사물과 사물간의 끊임없는 소통 : 사물은 떨림을 자아내는 생동적인 물질. 사물들이 주고받는 떨림 속에 우리들의 몸이 함께 떨린다.
※ 세잔의 그림 : 사물과 사물간의 관계. 생동적인 사물들의 표현.

- 존재의 근본 : 주체와 대상을 분간할 수 없는 경지. 몸을 포함한 일체의 사물들이 마치 거대한 하나의 감각 덩어리가 되어 전율하면서 개별성을 넘어서버리는 사태. 동시에 그러한

www.artnstudy.com

개별성을 상실하지 않고 사물들이 하나하나 뚜렷이 다양한 차이를 드러내는 사태.
- 살(la chair) : 감각과 사물이 일치하는 전 우주적, 근원적인 상태. 살의 두께가 곧 존재의 두께이고, 그러한 감각의 두툼함을 통해 몸과 사물은 서로 구분되면서 서로의 역할을 주고받아 서로 치환된다.

그래서 왜 우리가 사물들 자체를 그것들이 있는 장소에서 그것들의 지각됨을 훨씬 넘어선 그것들의 존재에 따라 보는가. 그러면서 동시에 왜 우리가 시선과 몸의 모든 두께를 동원하여 사물들로부터 떨어져 있는가를 이해하게 된다: 이 거리는 이 밀착됨의 반대가 아니다. 이 거리는 이 밀착됨과 함께 근원적으로 조응된다. 이 거리는 이 밀착됨의 동의어다. 이는 보는 자와 사물 사이의 살의 두께가 사물에게는 보는 자의 가시성을 구성하는 것이고 보는 자에게는 사물의 물체성을 구성하는 것임을 말한다: 보는 자와 사물 사이의 살의 두께는 양자 사이의 장애물이 아니라, 양자의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이다. 동일한 이유에서, 나는 가시적인 것의 심장에 있으면서 또한 가시적인 것으로부터 떨어져 있다: 이것이 가시적인 것이 두께를 갖고 있고 그럼으로써 자연적으로 한 물체에 의해 보이도록 운명지워진 까닭이다.(<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>-메를로-퐁티)

- 회화와 살의 관계 : 화가의 전신으로 들어오는 살의 떨림을 화가는 자신의 눈으로 보고 만진다. 즉, 사물 간, 내 몸과 사물 간 주고받는 감각적인 떨림을 눈으로 보고 만지는 것이다. 관능적(charnel) 눈을 지닌 화가.
※ 세잔, '냄새도 보인다'

- "각각의 사물은 모든 다른 사물들의 거울이다."
⇒ 화가는 선을 따라 움직이는 눈이 아닌, 선이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할 것.

※ 사물에 대한 집요한 관심. 도구적 관점에서 벗어나 사물을 보자. → 회화를 통한 사물보기 (강의목표)

www.artnstudy.com